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구은행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8.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 비대면 가계대출에 대한 자산군 분류 및 PD 추정 강화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이하 'PD')을 추정하면서 대출 운용기간이 짧고 부도데이터 등이 부족하여 PD 추정이 곤란한 일부 비대면 가계대출에 대하여 서민지원대출 자산군으로 분류하여 서민지원대출 대상으로 추정한 PD를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20XX년 이후 해당 자산군내 비대면 가계대출이 서민지원대출과 유사한 규모로 확대되고 실측부도율이 상승하여 현재 적용중인 PD 수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을 과소 평가할 우려가 있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가계대출을 서민지원대출 자산군이 아닌 별도의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최근 실측부도율 증가 추세를 대손충당금 PD에 반영하는 등 비대면 가계대출의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시기 바람

㉰ PD 추정을 위한 부도정보 인식 요건 강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등에 따라 은행은 PD를 추정할 시에는 부도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반영해야하는데도,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소매 익스포져의 PD를 추정하면서 기준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부도를 관측하는 기간 중 신규로 발생하는 부도(이하 '신규부도')를 반영하지 않아 은행이 경험한 신용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은행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소매 익스포져의 PD를 추정할 시에 신규부도 데이터를 반영하시기 바람

㉱ 부도위험 확대에 따른 PD 추정방식 강화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과거 실측부도율을 평균한 값에 미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추정한 PD를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소매 익스포져의 일부 자산군(pool)에 적용하고 있는 PD가 최근 X년 실측 부도율을 하회하고 있어 앞으로 부실위험 확대 가능성을 과소 평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은행은 부도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매 익스포져의 자산군별 PD가 최근 실측부도율을 하회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강화하시기 바람

㉲ 소매 익스포져 예측 PD 적정성 강화

은행은 과거 실측부도율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미래 거시경제 시나리오별로 PD를 추정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에 활용하고 있으나,

소매 익스포져의 경우 리스크특성에 따라 주거용부동산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개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익스포져의 실측부도율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도

전체 소매 익스포져 대상으로만 미래전망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예측PD를 추정하고 있어 소매 익스포져별 실측부도율 수준 등 리스크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측PD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미래전망 예측모형 개발시 소매 익스포져의 리스크특성에 따라 예측PD를 세분화하여 추정하시기 바람

㈐ 부동산 담보여신 부도시손실률(LGD) 관련 운영리스크 적용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도시손실률(Loss Given Default, 이하 'LGD')을 추정하는 경우 담보 취급 업무 등에서 은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손실*(이하 '운영리스크')을 반영하여야 함

* 담보 취급시점의 선후순위 정보 인식 오류, 대출 서류 미비 등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시 업무상 오류로 배당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

하지만 부동산 담보여신에 대한 LGD 추정시 경매낙찰가율 등 외부 경매정보를 활용하면서 은행의 부동산 담보여신 관련 운영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음

따라서,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동산 담보여신의 LGD를 추정하는 경우 운영리스크를 반영하시기 바람